

테마칼럼

이제강 9월호, 그리고 9월호, 경제로 세상보기

일확천금(一攫千金)은 없다!



송기진

경제는 심리적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한다. 세계에서 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력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기업이나 가계가 적극적, 긍정적, 미래지향적으로 경제행위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일확천금(一攫千金)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음을 항상 유념하면서...

Frantic day! 뉴욕 타임스가 지난해 9월14일(현지시간) 월가의 분위기를 표현한 '공란의 날'이다. CNBC방송은 Bloody Sunday 즉, 피의 일요일이라 부르기도 했다. 미 투자은행 4위 리먼브러더스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한 날의 미국 표정이다.

그로부터 1년 가까이 흘렀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글로벌 경제위기라 표현되는 작금의 상황을 미 투자은행 몰락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플로리다에서 의사의 아들로 태어난 찰스 E 메릴이 22세에 대학을 졸업하고 채권중개인으로 일하던 중 1914년 찰스메릴사를 설립했고, 소다수 판매비를 파는 친구 에드먼드 린치를 영입하여 회사이름을 메릴린치로 바꿨다. 1904년 이탈리아계 AP잔니니가 샌프란시스코 이탈리아타운에 뱅크 오브 이탈리아를 개점하고 봉급자들 대상 소액금융 중심 영업을 하다가 1930년 BOA로 개칭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주당 29\$에 작년 9월 14일 인수되기 전까지, 메릴린치는 세계 40개국에 진출, 1조 6천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미국 투자은행 3위의 글로벌 금융회사였다. 결국, 메릴린치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치명상을 입고 94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되었다.

한편, 독일에서 건너온 유대계 이민자 헨리 리먼이 1844년 포퓰상을 하던 두 동생과 함께 리먼 브러더스(Lehman Brothers)를 설립, 철도건설 파이낸싱에 뛰어들어 158년의 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미국 4대 투자은행으로까지 발돋움했으나, 2008년 9월 15일 뉴욕남부법원에 파산보호(Chapter11)를 신청함으로써

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미국 투자은행 1위, 골드만삭스는 어떠한가? 독일계 유대인 마르쿠스 골드만은 미국으로 이민과 역마차 사업으로 돈을 모아 1869년 뉴욕 월가에 자기 이름을 딴 어음중개회사를 세웠다. 골드만은 리먼브러더스에서 일하던 사무엘삭스를 합류시킨 후 회사이름을 골드만삭스로 바꾸고 세계 1위 투자은행으로 키워냈다. 하지만 유동성 위기에 몰려 결국 FRB로부터 긴급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정부 투자은행을 포기하고 은행지주회사로 체제를 바꿔야만 했다. 이에 앞서 미국 IB랭킹 5위인 베어스턴스는 작년 3월 JP모건 체이스에 팔렸다.

왜 미 IB 'Big 5' 중 3개사가 허무하게 몰락했는가? 투자은행(Investment Bank : IB) 신화의 붕괴는 '증권화 신화의 붕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투자은행의 비즈니스 구조는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여신후분배(originate-to-distribute)로 요약된다. 여신후분배(originate and hold)를 전문으로 하는 일반 상업은행(Commercial Bank : CB)은 자신들의 장부에 자산가치가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에 위험관리를 신중하게 하는 반면 자산을 증권으로 만들어 시장에 유통시키는 투자은행(IB) 모델은 유통만 가능하다면 채무자의 신용은 2차 고려사항이 된다. 투자은행 모델이 낳은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한 거품과 도덕적 해이가 결국 경제위기의 주범이 된 것이다.

'1929년의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왜 재현되는가?' 그것은 역사의 교훈을 잊었기 때문이다. 대공황도 금융적 측면만 본다면 상업은행(CB)이 투자회사(IB)를 겸함으로써 결국

주식시장 붕괴 충격을 상업은행이 흡수지 못해 발생했다는 게 정설이다. 1933년 미 하원의원 글래스와 상원의원 스티겔이 공동발의하여 글래스 스티겔법(Glass-Steagall Act)을 만들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사이에 방화벽을 치고 CB와 IB를 엄격히 분리시켰다. 그러나 미국은 역사의 교훈을 잊고 1999년 이 법을 폐지하여 상업은행의 투자은행 겸업을 허용하였다.

이 세상에 일확천금이 있는가? 다행히 글로벌 경제위기는 각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서서히 가닥을 잡아가는 듯하다. 한국은 이 위기를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여 세계 237개 국가 중 가장 선방한 것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최근에는 출구전략(Exit Strategy)에 대한 논의가 화두가 되고 있다. 통화·재정정책의 축소 및 출구전략의 시행방법이나 시기는 전적으로 정부당국이 결정할 정책적 판단사항이다.

1934년 케인즈는 그의 명저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에서 "나라의 오류는 버블을 낳고 비판의 오류는 장기불황을 낳는다."고 명시했는데 지금의 시장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제는 심리적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한다. 세계에서 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력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기업이나 가계가 적극적, 긍정적, 미래지향적으로 경제행위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일확천금(一攫千金)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음을 항상 유념하면서... <광주은행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북 조문단 파견, 경색된 남북 관계 개선되나

북한측이 파견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 일행이 21일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경색된 남북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북측 반응은 매우 이례적이고 신속했다. 서거 다음날 김정일 위원장 명의의 조문을 보내고 고위급 조문사절을 보내겠다는 통보에 이어 조문단 명단과 비행운항 계획서를 우리 측에 제출했다.

북측의 이같은 조치는 김 위원장과 분단 이후 첫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최상의 예우로 보아야 한다. 우리 정부도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고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북한 조문단 방문을 수용할 방침이어서 김 전 대통령 서거가 남북 관계 진전의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조문단 구성원들의 면면도 관심거리다.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 부장은 김 위원장의 공식 활동에 빠지지 않는 최측근이다. 김 비

서는 2005년 8·15 민족대추전 참가차 서울을 방문하면서 국립현충원을 전격 참배하기도 했다.

조문단의 서울 체류가 1박2일이라는 점 역시 주목된다. 당국자간 면담 계획이 없다는 통일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조문이 끝난 뒤 우리 정부 인사와의 접촉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방문 등 각국이 재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북측은 지난 2001년 별세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조문단을 보냈을 때도 우리측 당국자와 접촉한 전례가 있다. 이번 조문단의 서울 방문이 남북 화해에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떠한 형식이든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남북 관계에 물꼬가 트인다면 남북화해협력에 위해 힘을 쏟았던 고인의 뜻을 충분히 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남북 문제뿐 아니라 김 전 대통령의 국장 기간동안 각계 각층에 화해의 훈풍이 불기를 희망한다.

신종플루 백신 확보 차질 없어야

신종플루 확산속도가 심상치 않다. 19일 하루 동안에만 감염자가 100명을 넘어서는 등 전국의 확진 환자가 2천 320명에 달하고 있다. 광주·전남과 인접한 전북 전주와 모 여고는 10여명의 학생들이 신종플루 유사증상을 보이자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

신종플루 확진 환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뒤 검사를 원하거나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안전한 초기 대응도 신종플루 확산을 부채질 했다는 지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대유행 경고에도 정부는 개인 위생 청결을 앞세운 소극적 대책에 주력했다. 반면 백신확보나 검체(검 안의 피부 세포)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점 병원 지정에는 소홀했다.

정부가 뒤늦게 초기환자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항바이러스 비축량을 2배까지 늘리기로 했으나 신종플루의 대유행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충분한 백신 확보다. 정부는 1천930여 명의 예산으로 전국민의 27%인 1천 300만 명분의 신종플루 백신을 확보해 11월 이후 접점에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 방침대로 백신이 제대로 확보될지 미지수다. 국내 유일의 백신 생산업체인 녹십자가 수을 저하 등의 이유로 정상 공급이 어려울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신종플루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세계 각국이 너도나도 백신 확보에 나서면서 백신 수입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급기야 정부가 중국산 백신 수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중국산 백신의 품질검증과 확보가능 시기 등을 둘러싸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거점병원을 서둘러 지정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성능이 확인된 백신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보건 행정이 갈피를 잡지 못하면 국민 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無等鼓

장미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죽음에 관한 비밀 하나. 황간에 릴케가 장미꽃 가시에 찔려 패혈증으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체는 백혈병이 악화해 죽었다. 그런데 후세 사람들은 릴케가 장미 가시에 찔려 그 상처가 굼아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 더 낭만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릴케에게는 날마다 빼놓지 않는 습관이 있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씻었다. 거의 결박증에 가까웠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으로 태어나 병약했고 사물에 대한 편집증적인 시각이 있던 그였기에 당연한 행동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은 결박기에 손이 깨끗하면 세균이 없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보통 한쪽 손에만 6만 마리 정도의 세균이 있다. 더욱이 우리의 손은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병원균을 옮긴다. 자신에게 병균을 옮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악수나 신체 접촉, 또는 물건을 만짐으로써 병균을 다른 사람에게 옮긴다.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신종플루의 확산이 심상찮다. 정부에서도 대유행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제 해외 여행객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정말 우려되는 것은 타임플루라는 치료약이 있어 그 위험성에 대한 대중의 생각이 느슨해져 있다는 데 있다. 독감과 증상이 비슷해 자칫 치료의 시기를 놓치기 쉽다. 예방백신 보급도 내년 봄까지 미뤄

지는 모양이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위생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손만 잘 씻어도 큰 효과가 있다'고 조언한다. 실제 각종 바이러스의 감염경로를 추적해 보면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 손이 아니라 코에 갖다 댄으로써 감염되는 경우가 제일 많다. 통계를 종합해 보면 손만 제대로 씻어도 감염 질환의 60% 정도는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릴케처럼 결박증 수준까지는 곤란하겠지만 손을 자주 씻는 것은 요즘같이 바이러스 공포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행동이다. /김일환 여흥대체부장 kih8@

손씻기



기고



현지스님

종교칼럼

우리 민족 명절 중에 하나인 칠월칠석이 다가온다. 견우와 직녀가 1년 만에 단 한번 서로 만나 이별의 서러움을 달랠다는 날이다. 태평양 건너 먼 나라도 자유롭게 오고가던 시절에 고향방을 두고 갈수 없는 천만의 이산가족들은 바위처럼 굳어버린 이별의 장벽 때문에 그리운 부모 형제 두고두고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은하수 다리 건너 서로 만나 사랑을 확인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견우와 직녀 이야기는 설화이상 우리 민족에게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까막까치가 놓아

일제 강점 하에 전개된 우리 민족의 광복은 진정한 광복이 아니었다. 강대국에 의해 광복이 되어졌으나 그로 인해 남북이 갈라지는 비운을 겪고 민족 스스로의 자존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속에 한 이 서러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지난날을 교훈 삼아 우리 민족끼리 차근차근 하나하나 통일을 이룩하자라는 것은 의미 깊은 일이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은 어렵고 어렵게 이어오던 일들을

칠월칠석

준 다리에서 서로 만나듯 온 겨레 염원이 하나 되어 올해가 가기 전에 막혀버린 남북의 왕래가 복원되길 많은 국민은 바라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6·15합의 후 서울공방에 도착해서 "이제 남북 간 전쟁 위험은 없다" 선언했고, 그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개성관광사업 철도 도로연결 정치경제 군사회담으로 긴장상태가 완화되었고, 노무현 정부 10·4합의에 이어서 통일의 길이 보이는 듯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7~8년간의 공든 탑이 무너질 처지가 되어가고 있다. 6·15선언을 살펴보면 견우와 직녀 주저로 통일문제를 해결하고, 연합체와 연방제가 서로의 공통성이 있어 추진하며 민족화해와 협력을 실천 외세의 지난날 전철을 밟지 말고 통일을 이룩하자라는 뜻이다. <무등산 원효사 주지>

‘퍼주었다’고 한다. 밭에 씨를 뿌려도 새싹이 돋아 자란 후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수확할 수 있는데 씨도 다 뿌리기 전에 퍼주었다는 말은 씨를 뿌리지 말자는 뜻이나 같다. 우리는 그들이 가난하고 어려서 자존심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라 생각하고 안고 가야할 인연들이다.

중국인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일어날 국토분쟁을 막고자 동북 민족 고조 선사인 고구려와 발해 등 한반도 역사를 기록한 동북공정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칠월칠석날 하루 만나고 헤어지는 슬픔을 가진 견우직녀의 갈라진 국가가 아니라 통일을 이룩하여 우리의 역사인 만주를 되찾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 명절 중에 하나인 칠월칠석이 다가온다. 견우와 직녀가 1년 만에 단 한번 서로 만나 이별의 서러움을 달랠다는 날이다. 태평양 건너 먼 나라도 자유롭게 오고가던 시절에 고향방을 두고 갈수 없는 천만의 이산가족들은 바위처럼 굳어버린 이별의 장벽 때문에 그리운 부모 형제 두고두고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

아이들에 토마토 설탕 뿌려서라도 먹여라

토마토에 설탕 뿌려 먹으면 안 좋은 이유는 비타민 손실 때문이다. 설탕이 인체 내에서 분해되고 영양소로 작용하려면 비타민 B1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비타민 B1은 설탕의 대사에 쓰인다 보니 손실이 뒤따르게 된다.

하지만 토마토는 사람이 먹는 야채류 중 영양가가 가장 많은 식품으로 설탕으로 파괴되는 비타민만 있는 게 아니라 무기질과 칼슘, 칼륨이 풍부하다. 따라서 설탕을

뿌려도 이 무기질과 칼슘, 칼륨 등 다른 영양소는 그대로 살아있다.

모 중화국에서 학생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님이 설탕 때문에 영양소가 파괴되는 손해보다, 설탕을 뿌려서라도 먹여라 생기는 다른 영양소의 흡수로 얻는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막고 있다는 말씀 하시는데 들은 적도 없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윤용숙·광주시 서구 벽진동

황정걸

황정걸

최근 들어 보호가치가 높은 공간과 자원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개발과 환경보전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양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는 논란이 되고 있으며,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는 과도한 대립도 국가적 에너지 소모이기도 하다.

1970~80년대 우리나라는 보전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경제개발 논리가 우선인 시기였다. 당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주거 생활의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전 논리를 외치는 것은 소위 '배부른 사치'정도로 밖에 인식되

내 유일의 풍성사구가 위치해 있어, 사 진작가와 탐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그러나 이러한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수년 전부터 국립공원의 보전논리와 주민의 이용 논리가 대립하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풍성사구는 생태자원학적 세부 가치를 차지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발고도 100m,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막을 느낄 수 있는 웅장한 사구의 형성 자체가 엄청난 자연유산이라 할 수 있다.

수십 년 전부터 생활해 오 주민의 경험상 사구 관리방안과 국립공원의 보전

보전과 이용 사이의 갈등

지 못했다. 지금도 일부 그러하지만 이 시기엔 개발과 보전 논리가 마치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듯 서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갈등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국립공원이 중심에 있는 생태계 보전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보호지역(국립공원, 그린벨트 등)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규제 및 재산권 침해이다. 두 번째 유형은 이러한 자연자원에 경제적 가치를 창출시켜 단기간 이익을 창출하고자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훼손은 잠시 눈감아 줄 수 있는 아랑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제와 보전 사이의 갈등이다.

필자는 이러한 갈등 사이에서 상호 보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하나의 현상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전라남도 신안군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도서로 이루어진 도서군이며, 1천4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일명 '천사의 섬'으로 불리는 지역이다. 이렇게 수많은 섬들은 육상지역과 달리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인간의 간섭이 적어 국내 최대의 갯벌 등 보호가치가 높은 자연환경과 생태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의 중심을 다도해해상국립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섬의 모양이 소의 뿔을 닮았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위도는 국내 최대의 달랑개 서식지를 비롯하여 국

을 위한 개발 및 이용의 제한이 대립하게 되면서 풍성사구는 양자측 혹은 제3의 관리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국립공원에서는 2006년부터 5년 사업으로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사구 보존방안을 마련하고자 사구식물(실현구, 대조구), 모래포집기, 모래측정등에 의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주민의 경험상 의견과 과학적 모니터링 기법 적용을 위해 장기간 현장 기초 조사를 토대로 현재까지 4년간 매일 수행되어 왔으며, 이제 1년 후 5년간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 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에 의한 객관성 및 설득력으로 어린 시절 풍성사구를 모래밭때때로 이용했던 주민과의 의견을 좁히고, 자연이 준 위대한 유산을 관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구유실에 대한 원인규명 및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는 갈등을 풀어나가는 작은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례를 통해 국립공원에서는 자연에 대한 근본가치인 지속적인 보존과 이용의 조화를 통해 자연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왔지만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외면하면서 발생하는 기나긴 후회를 다시는 겪지 않도록 자연 속에 갈등이 묻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고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제1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집부 2200-672, 문화체육부 2200-661,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 A X 222-4267>, 조서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